개미들 "코스피, 지금이 고점?" 고위험 '하락 ETF' 3299억 베팅

KODEX 인버스 ETF 512억 매수
150선물인버스 ETF 1132억 사들여
"증시, 당분간 중립이상 환경 전망
반도체 중심 실적개선 기대감 유효"

국내 증시가 '밸류업 프로그램', 반도체 랠리 등에 힘입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고수익을 노리고 코스피 지수 하락에 투자하고 있다.

31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한 달간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선물인버스2X' 상장지수펀드(ETF)를 3299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곱버스'로 불리는 이 ETF는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1% 하락할 경우, 2%의 수익을 낸다. 그 반대로 1% 오르면 수익률은 -2%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고위험 상품으로 꼽힌다. 개인들은 'KODEX 인버스' ETF 역시 512억원어치 사들였다. 이 ETF도 코스피 등락과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으로 코스피200 지수가 1% 하락하면 1% 이익을 얻는다.

개인투자자들은 코스닥150 선물지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ETF도 1132억원가량 순매수했다.

이같이 개인들이 지수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것은 최근 코스피가 2년여 만에 2700선을 돌파하는 등 코스피 지수가 고점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 하락 전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이 기간 동안 국내 증시는 큰 변동이 없어 투자자 손실이 불어나고 있다. 실제로 KODEX 200선물인버스2X는 12.32% 하락했으며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는 11.89% 떨어졌다. 'KODEX 인버스' ETF도 4.88% 내렸다.

증권업계에서는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등 대체로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어 해당 ETF를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4월 중 2800선 진입을 시도할 전망"이라며 "사실상 이번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상반기 금리인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지점으로 이번에 그 가능성이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당분간 증시는 중립 이상의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 전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점이 우호적 소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금리와 달러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수출 전망이나 이익에 대한 기대도 크게 훼손될 개연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등락 범위가 높아진 상태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내 증권사는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야경. /유토이미지

'자사주 소각' 세제지원 규모따라 달라질 듯

내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증권사, 가이드라인 보고 결정 분위기
미래에셋증권 등 4곳만 소각 결정

국내 증권업계가 3월 정기 주주총회 일정을 끝낸 가운데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여부도 밝혔다. '밸류업 열풍'에 몇몇 증권사는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지만 대다수 증권사는 5월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자사주 소각에 나선 곳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등 네 곳 정도다.

NH투자증권은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기업 밸류업 차원에서 보통주 417만주를 매입·소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500억원 상당의 주식으로 NH투자증권의 지난해 별도 당기순이익 증가분이 965억원의 절반에 이른다. 키움증권은 약 645억원 규모의 당사 자사주 209만5345주를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소각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2월 22일 보통주 1000만주(822억원)의 소각을 결정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도 오는 5일 자기주식(우선주) 637억원 규모에 달하는 577만895주를 소각한다고 3월 29일 공시했다.

이렇듯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은 배당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주의로 꼽힌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자기 회사 주식을 기업이 직접 사들이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본 조달에 도움 된다는 측에서 주주들의 환영을 받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주주들은 주당순이익(EPS)이나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을 반긴다"며 "예전에는 자사주 매입만으로도 주주환원 의지가 있다고 봐줬지만, 이제는 소각까지 해낸 기업만 실제로 주주환원을 이행했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자사주 매입'만 지속하는 기업을 보는 시선은 주주가치 극대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각이 안 된 자사주는 최대 주주의 우호 지분이 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대신증권과 신영증권처럼 자사주를 임직원 성과 보상용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취지에는 맞으나, 소각 규모나 계획은 5월 발표 예정인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2년7개월 만에 최고가… 외국인·기관 'Buy'

metro 관심종목
삼성전자

주가 '상승세' 8만2000원대 안착
증권가 목표주가 10만5000원 제시
외국인들, 2주간 3.9조 규모 매수
기관 1.3조 매수, 개인은 5.1조 매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반도체 산업이 살아나면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주가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는 1년 만에 흑자반전이 기대되는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상향하며 낙관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 대비 1600원(1.98%) 오른 8만2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2021년 8월 4일(8만2900원)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고가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25일 차익실현 매물 출하로 7만78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주가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8만 2000원대에 안착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 주식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한 반면 개인들은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18일부터 22일까지 2조3099억원을 순매수한데 이어 지난주 1조6086억원을 사들였다.

기관도 2주간 1조2653억원을 매입했다. 같은 기간 개인은 박스권에 갇혀 있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자 5조1003억원을 순매도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인공지능(AI)용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로 생성형 AI 구동을 위해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5일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주 전보다 5.1% 상향된 5조원대로, 1년 전 6400억원과 비교해 보면 8배 이상 증가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실적이 1분기를 기점으로 바닥을 확인했다"며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은 메모리반도체(DS), 스마트폰(DX) 실적 개선에 따라 5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실적 개선과 함께 향후 HBM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주가를 최고 10만5000원으로 제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 1분기 메모리 가격이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연간 실적 역시 상향폭이 큰 상황이어서 D램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낸드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2분기부터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메모리 부문의 이익을 기존 대비 54%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주가는 경쟁업체들과 달리 HBM 관련된 우려로 인해 메모리 업황 호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HBM에 대한 우려가 일정 부분 완화되고 있는 만큼 본연의 업황을 반영한 주가 움직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증권사, ST 플랫폼구축 다 해놨는데…" 정부 STO 법제화 지지부진에 '한숨'

유진투자, 법제화땐 바로 투자 가능
토큰증권 컨소시엄 구성 등 준비 박차

증권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토큰증권(ST) 플랫폼 구축에 나선 가운데,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의 진척은 불투명해지면서 주요 주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내 토큰증권 관련 항목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미 실제 구현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로, 토큰증권의 법제화만 이뤄진다면 바로 MTS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다. 하나증권 역시 MTS 내 조각투자 항목을 신설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올해 초 디지털자산실을 신설하고, STO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증권사들은 토큰증권 금융·비금융을 모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사업 준비에 박차를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 토큰증권 워킹그룹,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 ST프렌즈, KB증권의 ST 오너스, NH투자증권 STO 비전그룹, 신한투자증권의 STO 얼라이언스, 삼성증권의 파이낸스 3.0 파트너스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은 '프로젝트 펄스'를 출범시키면서 함께 손을 잡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제화는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됐을 때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다"며 "시장 내 움직임이 있는 만큼 토큰증권 사업 자체는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법제화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권사들이 STO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인력을 늘리는 과정이 무의미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회에서는 정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지면서 STO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하은 기자 godhe@